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시편 71장 17절**

누가 당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선생님입니까? 학교, 교회, 일터, 가정에서 만나는 모든 종류의 선생님이 우리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모든 선생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편 71장에서 저자는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고 언급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선생님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랍비 즉 선생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선생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대부분은 젊은이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들여서,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우리의 스승이 되는지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 해 동안 우리는 젊은이들로부터 보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에서, 전 세계에서, 어린이와 청소년과 젊은이는 나이든 어른에게 테크놀로지를 가르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불의에 대해서 가르치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운동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젊은이에게 신앙과 교육과 삶의 건실한 기반을 선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성령강림절 특별헌금은 교육 사역이나 영성 교육 행사나 청년 자원봉사자 서비스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돕습니다. 장로교 청소년 트리엔니움이라고 불리는 영성 교육 행사에는 4000명 이상이 모입니다. 또한 이 헌금은 어떻게 어린이, 청소년, 청년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치고 우리 신앙 형성을 돕는지 볼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from my youth) 교훈하셨으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 71:17). 맞습니다. 그러나 이는 또 "하나님이여 어린이 때부터(from ***the*** *youth*) 교훈하셨으므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강림절 특별헌금을 하게 되면, 40%는 우리 교회로 배정되어 우리 지역의 어린이, 청소년을 돕는 사역을 지원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나누는 선물을 통해 젊은이들은 인생과 신앙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또한 그들이 우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역시 뭔가를 배우게 됩니다. 관대하게 드리십시오. 우리 모두가 조금씩 보태면, 많은 것이 모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젊은이를 통해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저희가 당신의 집을 단지 젊은이들이 존재하는 장소로만 보지 않게 하시고, 저희에게 만들게 하실 세상을 젊은이들이 적극적으로 지어 나가는 장소로 보게 하소서.* ***아멘****.*